

배포 일시	2022. 7. 19.(화)		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 김남균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 신익승 (044-201-4211)
보도일시	※ 7. 19.(화) 09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7월 25일 부터 김포-하네다 노선을 매일 운항 합니다

- 하네다 공항 통해 일본을 방문하는 국민의 항공권 선택폭 확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7월 25일(월)부터 김포-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기존 주 8회 에서 주 28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이번 운항 증편은 지난 6.29일 김포-하네다 노선 재개의 후속 조치로, 한국-일본 정부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.
  - 그간 국토교통부는 빠른시일 내에 증편 운항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,
  - 그 결과, 7.25일(월) 부터 김포-하네다 노선을 일주일에 최대 28회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 할 수 있었다.
-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-일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포-하네다 노선을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(5.11) 한 바 있으며, 이번 증편 운항으로 양국의 인적교류는 한층 더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 된다.
- 7.25일(월) 이후 김포-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는 매일 1회 양 공항을 왕복운항 할 수 있게 됐으며, 실제 적용 시점은 항공사별로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○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김포-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별 홈페이지\*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.

\* 대한항공([www.koreanair.com](http://www.koreanair.com)), 아시아나([www.flyasia.com](http://www.flyasia.com)), 일본항공(JAL, [www.jal.co.jp](http://www.jal.co.jp)), 전일본공수(ANA, [www.ana.co.jp](http://www.ana.co.jp))
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한국-일본간 국제선 운항 확대를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,

○ 향후 수요증가 추이 및 항공사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김포-하네다 항공편의 운항 횟수를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현정 항공정책관은 “김포-하네다 노선은 양국 수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수요가 많은 노선” 이라면서,

○ “이번 증편으로,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을 방문하는 국민 및 기업의 항공편 선택폭이 넓어 질 것으로 기대” 된다고 밝혔다.